

# 박지원 “한국에서 금메달 영광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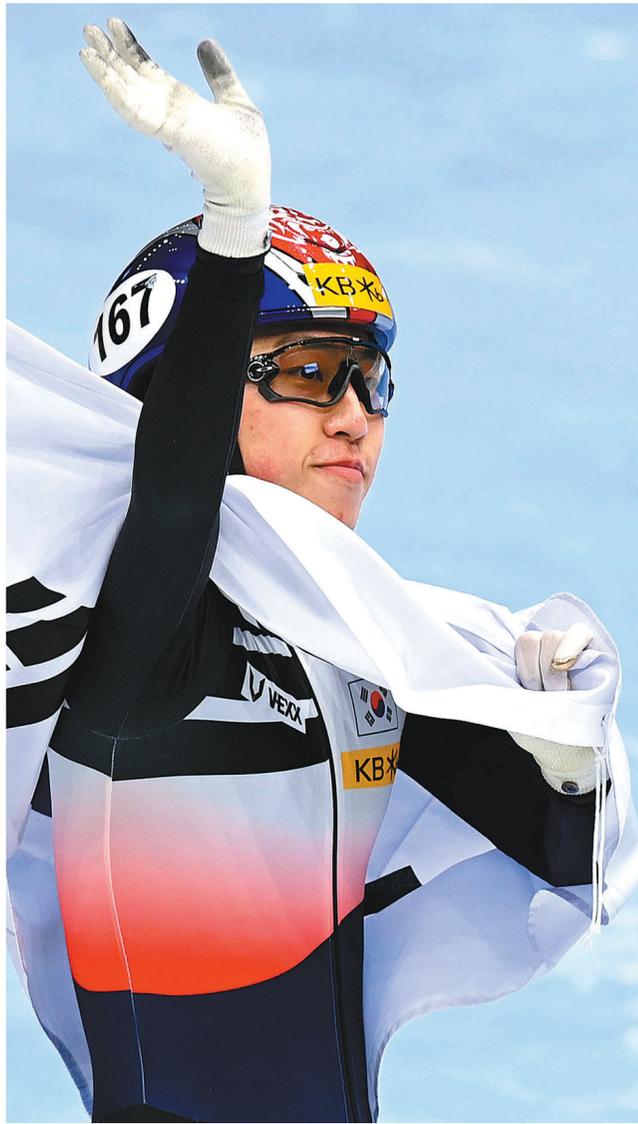
1500m 이어 1000m도 금메달  
아웃코스 2~3명은 손쉽게 추월  
폭발적 스피드...유럽선수도 인정  
‘월드컵시리즈 9개’ 저력 증명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서 개인전 금메달만 9개를 수확한 박지원(27·서울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중장거리 최강자로 공인받았다. 수많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힘껏 포효했다.

박지원은 12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벌어진 'ISU 2023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 결선에서 1분27초74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지원은 전날(11일) 1500m(2분17초792)에서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을 따낸 여세를 몰아 개인전 금메달 3개 중 2개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9개의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1000m와 1500m에서 따냈던 그가 중장거리 최강자로 공인받은 것이다.

박지원은 2019~2020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선수권대회가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올림픽에 나서지 못한 까닭에 황대현(강원도청) 등과 견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 스케이팅 기술을 더



욱 발전시켰다. 당시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힘과 체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다른 선수들에 대한 전략까지 파악하고 이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사전에 만족은 없었다.

올 시즌을 통해 그 결과물이 나왔다. 폭발적 스피드를 앞세워 아웃코스에서도 2~3명은 손쉽게 추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선두로 올라섰을 때는 인코스를 완벽하게 지켰다. 피지컬이 뛰어난 유럽 선수들도 박지원의 스케이팅에 혀를 내둘렀다.

박지원은 “메달을 딸 수 있다고, 그게 금메달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어제(11일) 1500m에선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이라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즐길 수 있었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팬들의 함성을 들으니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덧붙였다.

첫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에 이은 2관왕. 박지원의 쇼트트랙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그 기쁨을 홈팬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 그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따고, 2관왕에 오를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준 그 나라가 한국이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목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박지원이 12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ISU 2023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 결선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11일 1500m 금메달 획득에 이어 2관왕에 오르며 중장거리 최강자로 공인 받았다.

목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조재호(왼쪽)가 PBA투어 월드챔피언십 결선에서 우승한 뒤 후원사인 SK렌터카 황일문 대표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 PBA

## 조재호, 4시간 플세트 혈투 끝 우승 프로당구 한국선수 첫 '월드 챔피언'

PBA 투어 월드챔피언십...스페인 마르티네스 제압

'슈퍼맨' 조재호(42·NH농협카드)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프로당구 '왕중의 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재호는 12일 새벽 경기 고양시 JTBC 스튜디오 일산에서 끝난 PBA 투어 월드챔피언십 결선(9전5선승제)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태)와 4시간의 플세트 혈투 끝에 세트 점수 5-4(12-15 15-12 7-15 15-8 9-15 15-12 15-7 11-15 15-8)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해 상금 2억 원을 거머쥐었다.

초대 우승자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 2회 우승자 프레데리코 쿠드롱(벨기에·웰퍼저축은행)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 챔피언'에 오른 조재호는 랭킹포인트 20만점을 추가해 시즌 상금(4억2250만원)과 포인트랭킹(46만1500점)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 누적 상금도 종전 5위에서 쿠드롱(8억9450만원), 사파타(6억4900만원)에 이어 3위(5억3000만원)로 올라섰다.

결승에서 맞붙은 조재호와 마르티네스는 6세트까지 세트 점수 3-3을 만들며 팽팽히 맞섰다. 승부처는 7세트였다.

3-5로 끌려가던 조재호는 절묘한 되돌리기로 승부의 변곡점을 마련한 뒤 뒤돌리기와 대회전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행운의 키스까지 보태 7-5로 승기를 잡았다. 마르티네스가 옆돌리기를 앞세워 추격했지만 조재호는 빗겨차기와 앞돌리기로 추격을 따돌린 뒤 14-8의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옆돌리기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재호는 “부담이 너무 컸다. 응원 목소리가 들리면 서 지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며 “다음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 KMGGM, 홀덤편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전까지 '국내페이아웃 대회' 중단

현금·경품 제공 유사사행행위 규정  
“홀덤편 제도권 편입에 부담 될까 중단”

프랜차이즈 130호 점을 돌파한 '대한민국 넘버1' 외식홀덤편프랜차이즈 KMGGM(대표 이석영)이 홀덤편산업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 전까지 국내페이아웃 대회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KMGGM은 12일 “2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사행성 짙은 홀덤편에 대한 감시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KMGGM은 이와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국내에서페이아웃 대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홀덤편에서 카지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이나 경품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을 얻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KMGGM은 “우리는 세무사, 변호사와 몇

년에 걸친 치밀한 논의를 통해 세부회계구조, 시드권 지급방식 등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페이아웃 대회를 열어왔다”면서 “하지만 개정법률안을 앞두고 대회를 개최해 상금 지급을 한다면 홀덤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마인드 스포츠인 홀덤편의 국내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잠정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과 유관기관(국회, 사감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게임문화협회) 등은 현재 대대적으로 불법 홀덤편 현황과 대화사

의 상금지급 구조를 파악하고, 법 개정을 위해 TF팀을 꾸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KMGGM은 “업계 리딩기업으로서 발의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현금을 지급하는페이아웃 대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해외 대회사와 협업하는 국제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GGM은 1월 베트남 다낭에 KMGGM 1호점을 여는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K-홀덤편'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글로벌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2023 WBC 기록표 (12일)											
•체코-한국 3차전 (한국 1승2패)											
도구	체코	0	0	0	0	0	0	2	1	0	3
한국	5	1	0	0	0	0	1	0	1	0	X
체코	1	2	3	4	5	6	7	8	9	타점	타율
V.멘시	.....	.....	.....	.....	.....	.....	.....	.....	.....	3	0.162
E.소카	.....	.....	.....	.....	.....	.....	.....	.....	.....	3	0.250
M.홀루	.....	.....	.....	.....	.....	.....	.....	.....	.....	3	0.333
M.체르	.....	.....	.....	.....	.....	.....	.....	.....	.....	4	0.250
M.멘시	.....	.....	.....	.....	.....	.....	.....	.....	.....	4	0.125
M.멘시	.....	.....	.....	.....	.....	.....	.....	.....	.....	4	0.000
M.루지	.....	.....	.....	.....	.....	.....	.....	.....	.....	4	0.000
W.에스	.....	.....	.....	.....	.....	.....	.....	.....	.....	3	0.000
J.그레	.....	.....	.....	.....	.....	.....	.....	.....	.....	1	0.000
P.지마	.....	.....	.....	.....	.....	.....	.....	.....	.....	3	0.000
F.스울	.....	.....	.....	.....	.....	.....	.....	.....	.....	3	0.100
M.크레	.....	.....	.....	.....	.....	.....	.....	.....	.....	0	0.000
J.쿠비	.....	.....	.....	.....	.....	.....	.....	.....	.....	0	0.000
한국	1	2	3	4	5	6	7	8	9	타점	타율
V.멘시	.....	.....	.....	.....	.....	.....	.....	.....	.....	4	0.250
김하성	.....	.....	.....	.....	.....	.....	.....	.....	.....	4	0.250
이정후	.....	.....	.....	.....	.....	.....	.....	.....	.....	4	0.333
박병호	.....	.....	.....	.....	.....	.....	.....	.....	.....	2	1.000
지나성범	.....	.....	.....	.....	.....	.....	.....	.....	.....	2	0.000
강백호	.....	.....	.....	.....	.....	.....	.....	.....	.....	4	1.210
박해민	.....	.....	.....	.....	.....	.....	.....	.....	.....	0	0.000
양원지	.....	.....	.....	.....	.....	.....	.....	.....	.....	1	0.000
김해성	.....	.....	.....	.....	.....	.....	.....	.....	.....	0	0.000
이지영	.....	.....	.....	.....	.....	.....	.....	.....	.....	0	0.000
최정	.....	.....	.....	.....	.....	.....	.....	.....	.....	4	0.000
김지수	.....	.....	.....	.....	.....	.....	.....	.....	.....	2	0.111
최지훈	.....	.....	.....	.....	.....	.....	.....	.....	.....	1	0.000
T.에드	.....	.....	.....	.....	.....	.....	.....	.....	.....	3	0.125
한국	1	2	3	4	5	6	7	8	9	타점	타율
V.멘시	.....	.....	.....	.....	.....	.....	.....	.....	.....	3	0.333
김지수	.....	.....	.....	.....	.....	.....	.....	.....	.....	3	0.333
T.에드	.....	.....	.....	.....	.....	.....	.....	.....	.....	3	0.125
한국	3	7	11	7	7	7	7	7	7	33	0.333

[타자일수 1회말] 박건우 우직															
▲결승타=이정후(1회 1사 3루서 중전 안타) ▲홈런=김하성1호2호(2회1점 7회1점 L.에르올라 J.버르도) ▲2루타=박건우(1회) M.체르(5회) M.멘시(7회) ▲삼책=M.멘시(1회) ▲병살타=양원지(2회) 최정(8회) ▲폭투=정철원(7회) 이용진(8회) ▲실점=															
경기	승	패	계	회	구	선	수	안	홈	4사	희	상	실	자	타율
전	1	0	1	0	1.1	5.6	14	12	8	1	2	0	2	6	0.40.50
후	2.6	1	0	0	5.2	5.9	18	18	2	1	0	0	0	1	1.59
전	8.6	1	0	0	1.0	5	3	3	1	0	0	0	0	0	0.00
후	2	1	0	0	4.2	3.9	15	15	1	0	0	0	0	0	0.00
전	5.7	2	0	0	1.1	3.0	6	6	2	0	0	0	3	2	13.50
후	7.4	3	0	0	0.2	1.3	3	3	1	0	0	0	1	0	6.75
전	7.7	2	0	0	0.2	1.8	3	3	1	0	0	0	1	1	5.40
후	8.1	3	0	1	0.1	1.1	3	2	1	0	1	0	1	0	10.80
전	8.4	2	0	0	1	1.1	2.0	4	4	0	0	0	4	0	0.00

프로농구 (12일)									
신한은행 SOL 2022-2023 WKBL (플레이오프) 경기결과	BNK 썬	66	24	10-16	34	56	삼성생명	(1패)	
2022-2023 SKT 에이닷 KBL 경기결과	SK (30승18패)	74	33	18-21	38	73	인삼공사	(34승14패)	
			41	15-17					
			16-20						
			25-15		35				
	KCC (22승26패)	78	34	13-14	36	75	삼성	(13승34패)	
			44	21-22					
			25-18		39				
	DB (17승30패)	66	37	19-21	39	84	현대모비스	(28승19패)	
			29	18-18					
			13-23		45				

프로축구 (12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R) 경기결과	수원	수원FC	2	1-0	1	수원	관중 8670명		
				1-0					
	대전	대전 하나	0	0-0	0	포항	관중 8661명		
				0-0					
	춘천	강원	1	1-1	1	대구	관중 4058명		
				0-0					
	서울	서울	1	0-0	2	울산	관중 20549명		
				1-2					
	전주	전북	2	0-0	0	광주	관중 8051명		
				0-0					
	인천	인천	1	1-0	0	제주	관중 6007명		
				0-0					

프로배구 (12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경기결과	한국전력	3	25-18	1	OK금융그룹	(14승20패)			
			20-25						
			25-20						
			25-21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경기결과	GS칼텍스	2	25-18	3	IBK기업은행	(16승19패)			
			24-26						
			25-23						
			24-26						
			13-15						

경기예고									
프로야구 (13일)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범경기	KIA <대전>	한화	KT <고척>	키움				
		오후2시, SBS SPORTS	오후2시, MBC SPORTS+						
		LG <창원>	NC	두산 <사직>	롯데				
		오후2시, SPOTV	오후2시, KBS N SPORTS						
		SSG <대구>	삼성						
		오후2시, SPOTV2							
프로농구 (13일)	신한은행 SOL 2022-2023 WKBL 플레이오프	신한은행 <인천도원>	우리은행						
		오후7시, KBS N SPORTS / MBC SPORTS+							
		2022-2023 SKT 에이닷 KBL							
		KT <수원KT아레나>	캐롯						
		오후7시, SPOTV / SPOTV ON							
오늘의 경기 (13일)	씨름	제53회 회장기전국장사대회(10시·문경체육관)							